

大巡神觀과 神人調化의 理想

李京源*

目次

I. 머리말	1. 가치의 근원자로서의 神
II. 神의 概念과 類型	2. 가치실현의 주체로서의 人間
1. 大巡思想에서의 神概念	3. 神과 人間의 相補性
2. 大巡思想에 나타난 神의 類型	V. 神人調化의 理想
III. 神의 屬性과 諸神의 關係	1. 神人調化의 概念
1. 神의 屬性	2. 人尊의 實現
2. 諸神의 關係	3. 倫理道德秩序의 確立
IV. 神과 人間의 關係	VI. 맺음말

I. 머리말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신에 관한 논의는 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는 신관념의 기원이 곧 종교의 기원으로까지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¹⁾ 나아가 종교의 정의를 내리는 데까지도 신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인간행위로 규정짓고 있다.²⁾ 그만큼 하나의 종교사상을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 1) 이은봉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종교기원의 문제는 실상 신관념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교세계에의 초대』 1993, 도서출판 벽호, p.39)
- 2) 종교에 관한 정의는 100여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그 정의의 가장 많은 공통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곧 절대자 신에 대한 상정과 외경적 귀일의 내용이다.(加地伸行『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지영사 1996 p.39 참조)

연구하는데 있어 신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실감케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종교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서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세속화'(Secularization)의 경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³⁾ 이러한 경향은 종교계에 있어서 신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사상적 共有와 인간위주의 타락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지니고 있는 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 속에는 항상 상호배타적인 신관념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런 배경속에서 종교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신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속화의 경향에 편승한 종교는 그 나름의 종교적 본분⁴⁾을 망각하고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게 되므로서 진정한 가치기준과 행동의 준칙이 애매해지게 된다. 이 때 가치의 근원을 상정하고 당위의 근거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신관념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흔히 서양의 전통적 有神論에서 다루는 신 관념은 보다 인간 초월적이며 至高의 善한 존재로 전지전능하고 영원하며 自存한다는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유신론의 입장은 인간과 분리된 신이 지니는 강압성과 인간지배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근대에 이르러 인간이성의 저항을 받게 되었으며, 나아가 니이체나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의 무신론적 경향을 대두시키게 되었다. 모든 종류의 有神論은 신을 主觀·客觀의 二分法하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폭군으로 나타나고 인간은 그의 절대적 섭리밑에서 자유와 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서양종교철학에서 논의되는 신의 죽음이나 신의 不在, 신의 초월과 같은 문

3) 대체로 '세속'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영원하며, 저 세상적이며 신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 세속화는 그것이 서양에 있어서 오랫동안 작용해 왔고, 그러나 근래에 와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중대한 현대화의 과정, 중세기의 교회지배로부터 인간주의 예로의 인간이성의 해방, 자율의 성취의 과정이다. 종교다원주의는 탈근대주의라고 불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이념은 대화주의와 상호인정과 공존, 타종교의 인정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성기 『周易의 現代宗教史的 意義』 제 19회 한국주역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논문 pp.9~17참조)

4) 이 때의 종교적 본분이라 함은 신 또는 절대자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인간세계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직자의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는 모두 신 자신의 변화라든지 신 자신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인간정신의 문제로서 인간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⁵⁾

한편 이러한 서양의 신관의 특성과 대조적이면서도 그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동양의 신관을 언급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일찌기 신을 결코 배타적이며 초월적인 면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현실적 상황속에서 인식하는 면을 보이며 이에따라 신은 인간과 相合關係를 이루고 있다. 고대의 유가경전에서나 공자의 天觀에서 신은 超越的이면서도 內在的인 특성이 항상 조화되어서 신관의 전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⁶⁾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속에서 오늘날의 사상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도 주로 동양사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⁷⁾ 종교적 과제로 대두되는 신관념의 새로운 모색도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 본다. 따라서 본 고의 과제는 이러한 신관념의 논의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함과 동시에 한국종교가 이러한 조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모색해보는데 있다. 이러한 과제의 일환으로 본고는 한국 自生宗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大巡思想의 神觀을 고찰해보고 나아가 그 종교적 가치실현의 이념으로 제시되는 大巡宗旨의 ‘神人調化’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神의 개념과 類型

1. 대순사상에서의 神 概念

(1) 신의 다양한 명칭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명칭에 대한 다양성에서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의 토대가 되는 경전

5) 김하태 「現代 西洋宗教哲學에 있어서 神觀의 脫 西洋化」 『동방사상논고』 종로서적 1983, p. 868 참조

6) 拙稿 『書經에 나타난 上帝·天觀』 동양철학연구 제 16집, 1996 pp. 196~208 참조

7) 이진우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1993, 서광사 pp.317~332 참조

인 『전경』을 살펴보면 ‘神’이라는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神明’ ‘靈’ ‘鬼神’ ‘魂魄’ 등의 개념이 그것인데 이는 신에 대한 또다른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이 통합된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신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개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는 것이 이후의 신관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먼저 ‘神明’이라고 했을 때에는 ‘神’+‘明’으로 ‘밝을 明’자에 대한 의미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신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明은 ‘어두울 暗’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이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神明이란 주로 ‘신령스럽다’ ‘조화롭다’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⁸⁾

‘鬼神’은 주로 보편적 신개념에 대한 구체적 분석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宋代의 朱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두 기운으로써 말하면 鬼는 陰의 靈이요, 神은 陽의 靈이며 한 기운으로써 말하면 이르러 퍼짐은 신이 되고 돌이켜 되돌아 감은 귀가 되니 그 실체는 한 물건일 뿐이다.⁹⁾

즉 귀신은 원래 보편적 명칭으로서의 神을 말한 것인데 단지 陰과 陽으로 나누어 분석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때 靈이라고 하면 可視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에 대한 불가시적이며 정신적 활동의 원동력으로 여겨지는 실체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동양고전에서는 이러한 神明이라는 단어를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주로 ‘신령스러움’ ‘조화로우며’의 뜻이 담겨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莊子』 천하편에 「古之人 其備乎, 配神明, 醇天地, 育萬物, 和天下, 澤及百姓」, 『荀子』 性惡篇에 「今使塗之人伏術爲學, 專心一志, 思索孰察, 加日縣久, 積善而不息, 則通於神明, 參於天地矣」 등은 신명의 신령스러움을 말하고 있으며, 『莊子』 천하편의 「判天地之美, 析萬理之理, 察古人之全, 寡能備於天地之美, 稱神明之容」은 신명의 ‘조화성’을 가리키고 있다.

9) 『中庸』 제 16장 朱子注 「愚謂 以二氣言 則鬼者, 陰之靈也, 神者, 陽之靈也. 以一氣言 則至而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其實, 一物而已」

‘魂魄’이라고 하면 보다 인간중심적이며 人間內在的인 의미로써 사용되어지는 神明칭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두가지 요소로써 정신과 육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동양고전에서는 주로 魂을 陽, 魄을 陰이라고 했다.¹⁰⁾ 성리대전 권 28에는 혼은 神 백은 鬼라든가, 魂은 氣의 神 魄은 精의 神이라고 하여 一氣가 음양으로 분화하여 그 작용으로 인간이 생성된다고 보았다.¹¹⁾

이상의 신에 대한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神觀이라고 할 때에는 그 총체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보편적 신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명칭의 다양성은 신 개념을 특수한 관점에 입각해서 보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명칭에 대한 상세한 논의보다는 그 다양성을 통일하는 보편적 명칭으로서의 신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는데 주력하기로 한다.

(2) 일반적 개념

신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 견해로써 서양에서는 주로 인간의 신앙적 대상이 되는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에 대한 관념은 비록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다룬다 하여도 그 내용은 언제나 종교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¹²⁾ 동양에서는 고대에 주로 人格的이고 主宰的이며 超越的인 의미의 신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시대를 내려오게 되면 보다 理法的이며 內在的인 철학적 사색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게 되었다.¹³⁾ 동서양의 전통적인 신관념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그 차이를 인식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본 고에서는 주로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 관념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경』의 구절을 토대로 한 신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대순사상에 입각해 볼 때 신 개념을 이루는 첫번째는 ‘신은 진리적인 존재이면서 이 세계에 충만되어 있으므로써 생명의 본질이 된다’는 점이다.

10) 『春秋左傳』 소공 7년 「人生始化曰 魄, 既生魄陽曰魂, 用物精多則魂魄疆」

11) 『유교대사전』 박영사 p.1728~1729 참조

12) 김형석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p.628~630참조

13) 최영진 『易傳에 있어서의 神의 문제』 공주사대논문집, 1983, pp.172~176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과 같이 써 붙이셨도다. (부도 생략)¹⁴⁾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¹⁵⁾

이 때 진리라고 하면 인간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지향점이 되는 것으로 철학적으로는 궁극적 존재이면서 종교적 귀의의 대상이고 윤리적으로 당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고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른다’는 말에서 신은 이 세계에 충만해 있는 존재이며 모든 사물의 생명의 본질을 구성하는 실체임을 가리키고 있다.

신 개념의 두번째로는 ‘신은 하나의 氣運’이라는 점이다. 『전경』을 보면

萬物資生 羞耻放蕩 神道統 春之氣放也 夏之氣蕩也 秋之氣神也 冬之氣道也 統以氣之主張者也¹⁶⁾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¹⁷⁾

라고 하여 신은 곧 기운임을 말하고 있다. 첫번째 예문에서는 이러한 기운 가운데 특히 가을의 기운을 가리켜 신(秋之氣 神也)이라고 하였으며, 이 때 가을은 만물이 결실하고 열매맺는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두번째 예문에서는 신명, 즉 신의 움직임이 곧 기운의 움직임으로 대변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신은 하나의 기운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신 개념의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존재방식과 관련해서 인간 삶의 또다른 측면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인간이란 그 삶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인간의 죽음이란 可視的이고 육체적인

14) 『전경』 교운 1장 19절

15) 『전경』 교법 3장 2절

16) 『전경』 교운 1장 44절

17) 『전경』 교법 3장 5절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는 不可視的이고 정신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이란 바로 인간의 육체적 요소를 지니지 않은 정신적 삶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다.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¹⁸⁾

윗 글에서 볼 때 사람의 원질적인 구성요소는 魂과 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된다는 것이니 이 때 신은 인간 삶의 또다른 존재방식에 다름아니다. 여기에 한편으로는 동양적 신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불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면서 인간과 신이 단절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속에 놓여져 있음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신관, 특히 대순사상의 신관에서 신과 인간의 相涵關係가 무엇보다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순사상의 신개념을 정리해보면 신은 하나의 보편적 기운이면서 진리적 존재이며 따라서 이 세계에 충만되어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은 인간 삶의 또다른 측면을 뜻하기도 하므로 인간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對人間的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大巡思想에 나타난 神의 類型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의 제유형은 인간적 삶의 형태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에 입각하여 구성된 신 개념이다 보니 인간의 사고가 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신에 대한 관념도 복잡해져서 그 형태 또한 천차만별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전경』에 언급되어 있는 諸神의 이름을 고찰해 보고 이를 적당한 기준에 의해 분류해 보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18) 『전경』 교법 1장 50절

(1) 位階上の 분류

여기서 '위계'란 그 신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적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크게 최고신과 그 대리격으로서의 고급신, 그리고 말단의 위계를 차지하는 下級神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最高神 - 신들의 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잡다하게 많은 신들이 하나의 원리로 통일될 수 있는 초월신의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전시대에는 신들이 그 기능이나 형태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신들 상호간에도 어떤 절대적인 연관이 없고 오히려 저마다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의 지배적인 원리에 의해 신들의 세계가 정비됨에 따라 최고신의 관념이 생겨지게 되는데, 인도의 브라만, 유대의 야훼신, 로마의 주피터, 페르시아의 미트라등은 모두 그러한 최고신들이다.¹⁹⁾ 대순사상에서도 이러한 최고신의 관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고 대순사상 성립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이것은 별도의 사상적 구조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²⁰⁾ 여기서는 그 명칭에 대한 것만을 살펴보면 첫째 '上帝'의 호칭이 『전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天尊'(행록2장 2절), '天神'(교운 1장 12절, 1장 23절), '雷聲普化天尊上帝'(교운2장 55절) 등의 명칭이 있다.

② 최고신의 대리격으로서의 高級神 - 앞에서 최고신은 모든 다양한 신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였는데 구체적인 현상계에 있어서는 그 대리격에 있는 고급신들이 이를 맡아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치 인간사회에 있어서 대표격인 군주는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각 부처의 담당 기관장이 실무를 맡아서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업무의 성격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적인 일이므로 계급적 상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의 이름을 거론해보면 주로 '神將'(행록1장35절)의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방신장(행록2장10절, 4장39절), 48장(행록2장10절, 공사3장28절, 예시78절) 28장

19)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 도서출판 벽호, 1993, p.51

20) 拙稿 『大巡上帝觀 研究』 대순사상논총 1집, 대순사상학술원, 1996, 참조할 것.

(행록2장10절, 공사3장28절, 예시38절), 이십사장(공사3장28절, 예시38절), 천지신명(공사1장9절, 교법1장42절), ‘仙女’(행록1장10절, 5장15절, 5장21절, 공사2장16절, 3장6절)등은 모두 이러한 고급신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③ 下級神 - 이는 어떠한 체계에 있어서 말단의 잡역을 맡아서 행하는 부류의 신을 말한다. 主宰格에 있는 최고신이나 그 대리격에 있는 신에 비해서 아무래도 담당하는 역할이 단순하고 축소되어 있다고 보아 위계상으로는 하위층에 속하는 신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으로서 는 주로 ‘使者’(행록2장2절)의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명부사자(행록1장34절, 제생21절), 천상벽악사자(권지2장3절)등이 있다.

(2) 거주영역상의 분류

거주영역은 크게 天界와 地界 그리고 人界로 나누어 고찰해볼 수 있다. 이 때 天界란 地面과 상대하는 무형의 공간전체를 말하며, 地界란 有形의 형질에 근거한 可視的인 토대를 뜻한다.²¹⁾ 그리고 人界란 이러한 천지의 영역과 어떠한 간격도 없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결합체로서의 인간과 그 삶의 역사에 근거한 영역을 말한다.

① 天界神 - 중천신(공사1장29절), 황천신(공사1장29절), 천지망량 일월조왕 성신칠성(교운1장44절)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地界神 - 육장금신(행록 2장16절), 지방신(교운1장63절), 지하신(교운1장9절), 조선신명(예시25절), 서양신명(예시29절)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 人界神 - 선령, 선령신(공사3장9절, 교운1장33절, 교법2장14절, 행록44절, 교법1장9절), 동학신명(공사2장19절), 관운장(권지2장21절)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기능상의 분류

신의 개념이 인간의식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의 의식이 분화됨에 따라 신의 종류도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되고 발전되며 전문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²⁾ 이에 따라 대순사상에서는 기

21) 宋龜峰『太極問』p.25 「出地以上, 無非天, 古詩云, 坎得一尺地, 便是一尺天...六舍之內, 非質處便是氣, 非地處便是天」

능적으로 분화된 신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그 자체로 고유한 기능을 지니는 신과 또하나의 상대적 관계에 의해 작용하는 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그 자체로서 고유한 기능신 - 雨師(행록4장31절, 권지1장16절, 권지2장35절), 寵王(행록 4장36절), 西神(행록5장33절, 예시30절), 호소신(공사1장16절), 도술신명(공사2장4절), 도통신(공사3장15절, 교운1장41절, 권지2장37절, 예시 12절) 만사신(교운1장50절), 문명신(교운1장9절, 예시12절), 백복신(교운1장50절), 육정신(교운2장29절), 아표신(권지1장8절), 도로신장(권지1장13절), 괴질신장(제생23절)등이 있다.

② 상대적 관계에 입각한 기능신 - 척신(행록3장16절, 4장47절, 교운1장2절, 교법2장14절), 원신(행록5장15절, 예시 3절), 보은신(공사3장18절), 역신(공사3장19절, 교법3장6절)등이 있다.

(4) 가치개념에 입각한 신

가치개념이라는 것도 또한 인간의 의식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의 이름도 이러한 가치개념을 빌려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

그 신의 이름을 나열해보면, 대신명(행록4장8절, 공사2장5절, 교법3장18절), 황극신(공사3장22절), 신성·불·보살(교운1장9절, 예시1절), 군자신(예시50절), 만리장신명(예시69절)등을 들 수 있다.

Ⅲ. 神의 屬性과 諸神의 關係

1. 신의 속성

신의 속성이라 함은 다양한 신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신되게끔하는 본질적인 성질을 말한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신에게만 귀속되는 성질이 아닌 諸神의 보편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前述한 신의 개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신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성질을 여러 경우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다음의 네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1) 無情·無私·無偏의 존재

신의 속성 가운데 첫번째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신은 情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편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주로 감정을 지니고 사사로운 행동을 하며 편벽되게 일을 처리하기도 하는 것과 대조된다. 『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²³⁾

윗 글은 주인의 아내가 힘든 일에 불평을 품어 떡이 익지 않게 되자 人身으로 계시는 상제께서 인간의 정으로서 용서하고자 하여도 신명이 용서하지 않기에 그 아내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므로써 일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즉 사람은 정이 있어서 잘못에 대해 용서도 하지만 신명 즉 신은 그러한 情적

23) 『전경』 행록 1장29절

인 존재가 아니므로 '용서'와 같은 행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은 '無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²⁴⁾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²⁵⁾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신은 이기적인 처사로서 어떠한 사사로움을 지니지 않으며, 또한 편벽됨이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2) 倫理道德的 本源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신의 속성 가운데 또하나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고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예법도 이러한 신의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윤리도덕적 체계도 신의 질서에 의해서引出되어진다고 여겨진다.

어느 때인지 분명치 않으나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느니라. 「고부에 나보다 향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향렬을 좇아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 하셨도다.²⁶⁾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

24) 『전경』 교운 1장33절

25) 『전경』 교법 1장29절

26) 『전경』 행록 1장 38절

추셨도다.²⁷⁾

위의 글을 보면 인간의 윤리적 전통이 엄연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그 근원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보면 오히려 인간 임의의 생각보다는 신적인 근원성이 더 우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신과 사람이 만날 때에는 일정한 예로써 대하게 되고 이러한 예가 인간 상호간에도 전해져서 지켜지게 되면 사회전반의 보편적인 예로써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²⁸⁾

(3) 賞善罰惡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관념은 동양적 신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²⁹⁾ 단지 이러한 상벌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하고도 원망이 없는 진정한 因果現象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적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³⁰⁾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도다.³¹⁾

윗글에서 보면 신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 상벌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리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 때 그 진위판단의 문제도 대두되게 되는데 대순사상의 신관에서는 그 판

27) 『전경』 공사 2장 5절

28) 『禮記』 序文에 보면 禮는 성인이 하늘 즉 신의 가르침을 이어서 표준을 정한 것이며, 이를 세상에 드리워 가르침을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前聖繼天立極之道, 莫大於禮, 後聖垂世立教之書, 莫先於禮」

29) 동양고전인 『書經』에서는 「天道福善禍淫」(湯誥)이라는 말로써 이를 설명하고 있다.

30) 『전경』 교법 1장 32절

31) 『전경』 예시 30절

단의 근거가 신에게 놓여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自然現象을 담당

대순사상에서 신은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각각 주관하고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자연현상을 일관되게 통솔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신의 위격에서 주재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실재로 담당하는 것은 바로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신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四時, 風雨霜雪, 雷震등의 현상은 그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신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최고신으로서의 上帝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이것은 동양적 전통에서는 四時에 대한 관념이나 風雨霜雪등의 현상이 궁극적인 존재가 顯現하는 양상 또는 최고신의 의사표현이라는 양식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³²⁾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 갑칠(金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 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흠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³³⁾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三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견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³⁴⁾

32) 琴章泰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pp.187~188참조

33) 『전경』 행록 4장 31절

34) 『저경』 곳사 1장 4절

위의 첫번째 예문은 雨師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신이 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우사를 작용하게 하므로서 필요한 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예문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이 각각의 기능신에 의해 담당되고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이것을 주관하는 최고신격으로서의 상제가 그 命을 내림으로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으로 신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신의 속성이라는 것이 비단 최고신만이 가지는 유일신적 속성을 말함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 충만해 있고 항상 인간과 관련해서 존재하며 다양한 신의 명칭을 통합한 보편적 존재로서의 신을 대상으로 한 속성이라는 점이다.

2. 諸神의 關係

대순사상에서 바라본 신의 유형은 무엇보다도 그 다양성에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나아가 무질서한 궤도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 일관된 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신의 속성에 연장하여 그 통일된 원리를 궁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들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에 대한 관념의 변천양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多神敎적인 형태에서 單一神敎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신들의 모습이 하나의 최고신의 현현에 불과하다는 체계적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³⁵⁾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의 신관에서도 수많은 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상제'라고 하는 최고신의 권능과 主宰에 의해 체계적인 통일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에 대한 관념이 사회적인 분화와 더불어 더욱 상세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날 단순한 국가의식이나 민족의식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큰 神格이 요청되는 것을 볼 때, 대순사상에서는 다양한 신존재간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이를 통일된 체계에 의해 구축한다는 것으로 諸神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

35) 이은봉 上書, pp.61~62 참조

는 『전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날 종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였나이까」고 물으니라. 상제께서 「교중(敎中)이나 가중(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³⁶⁾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³⁷⁾

윗 글에 의하면 첫째 예문에서 신은 ‘神政’이라고 하는 엄격한 질서를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그 체계가 있고 정치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듯이 그 분화된 정도에 따라 신의 관념에서도 하나의 체계와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번째 예문을 보면 신의 체계에서 각각의 신은 하나의 영역적 경계를 토대로 자기 영역을 굳게 지키면서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하늘과 땅의 구분, 동양과 서양의 구분, 국가와 국가의 구분, 지방과 지방의 구분에 따라 신의 구분도 뚜렷하게 나누어져

36) 『전경』 행록 3장 8절

37) 『전경』 교운 1장 9절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문명을 開創하는데는 그 영역에 거주하는 기능신으로서의 ‘문명신’의 역할에 의해 모든 문화와 문명이 개창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신들은 제각기의 영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한 인물의 역사적 계기에 의해 서로 넘나드는 과정을 밟게 되므로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대순사상의 역사관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신적 구분속에서도 그 통일된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최고신의 관념에 해당되는 ‘上帝觀’이다. 상제는 天界에 있어서도 가장 最高位라고 할 수 있는 ‘九天’³⁸⁾에 臨在한 분으로 유일신적 관념에서의 전능자적 신이며 전 우주를 주재관령하는 주재자의 신이다. 그 보다 하위의 신격들은 이러한 최고신의 주재하에 각자의 영역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와 신명계의 무질서가 형성되고 위기상황이 조성되게 되자 최고신보다 하위의 신격인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無所不能의 최고신이 지상에 강림하게 되는 과정을 밟으므로서 이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대순 상제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신적인 질서와 체계속에서 그 위계적 차이에 따라 문제 해결의 능력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보다 하위의 신격은 보다 상위의 신격에 대해 엄격한 上奉下率적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대순신관에서의 諸神의 關係란 그 체계와 질서가 엄격히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의 구조와 상호 접목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인간사회를 이루는 단위와 유사하게 신의 세계에서도 그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식의 분화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지 이러한 신관의 저변에는 그 체계상 엄격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성에서만 끝나지 않고 ‘상제관’에 의해 하나의 통일된 원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諸神의 관계에 있어서 특

38) 이 때 구천이라고 할 때의 九의 의미는 양적인 개념에서의 숫자인 9라기 보다는 象數學적인 의미에서 지칭하는 ‘極數’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IV. 신과 인간의 관계

대순사상의 신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신의 개념과 모든 유형이 인간의식의 분화과정과 유리될 수 없듯이 대순사상의 종교적 위상도 이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와 상대한 인간의 위상을 알아본 뒤 나아가 신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다루기로 한다.

1. 가치의 근원자로서의 신

대순사상에서 볼 때 신존재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자체의 완전성과 진리성에 대한 의미도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존재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 가치도 인간이 개입되었을 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신의 존재의의는 인간행위가 지향해나가야만 하는 하나의 근원적 가치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인간이 신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인간의 前面에서 이끌고 나갈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³⁹⁾ 여기에 신은 인간에게 있어 가치의 근원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전경』의 내용을 찾아보기로 한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이하생략)⁴⁰⁾

39)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人無神前無導而所依...」

40) 『전경』 예시 73절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41)

위의 첫번째 예문에서 '神道'란 신적 질서의 근원성을 뜻하는 말이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의 道는 인간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며42) 나아가 그 역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직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만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 예문을 보면 '謀事在人 成事在天'의 역사에서 '謀事在天 成事在人'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순사상에 입각해 볼 때 오늘날의 역사가 인간의 謀事に 의해서 진행되어 나왔음을 시사하고 그 성과는 신적인 예정에 의해서만이 달성가능한 것이었으나 앞으로의 역사는 신적인 질서의 개편이 가치의 근원성으로 작용하고 이를 인간이 지향해 나갈 때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신은 인간에게 있어 가치의 근원자로서 존재하고 이를 인간이 바르게 상정하여 생활해나갈 때 비로소 인간사회에서 하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가치실현의 주체로서의 인간

신이 인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숭배의 대상만으로 남았을 때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오직 신의 지배와 명령만이 의미를 지니며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창의력은 그만큼 상정된 신의 틀에 의해 단속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신의 피조물로서만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 참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야만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오늘날 인간은 무한한 욕구발산의 시대에

41) 『전경』 교법 3장 35절

42) 『전경』 예시 25절에 의하면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 형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모두 신적인 움직임이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살고 있으면서 그 절제와 충족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신과의 관련성속에서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신을 떠난 인간도 있을 수 없으며, 신에 귀속되는 인간이 아닌 신의 상대로서의 인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⁴³⁾

마음이란 것은 귀신에게 있어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⁴⁴⁾

‘천존’과 ‘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신격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인간밖의 숭배대상을 天과 地라고 하는 것에 상정한 것이니 인류의 종교적 역사는 그렇게 신격을 인간 외부의 대상물에 한정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대순사상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人尊’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므로 이미 신이 인간에게서 발견되어 지고 인간이 없이는 그 존재근거를 지닐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신적 가치를 인간이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위의 두번째 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존재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人尊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에서 부터 찾을 수 있다.

‘마음(心)’이 人尊으로서의 인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까닭은 그것이 신과의 交通을 통해 하나의 가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본체가 된다는 점이다. 윗 글에서 마음은 ‘귀신 즉 신이 드나드는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그리고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⁴⁵⁾라고 하였듯이

43) 『전경』 교법 2장 56절

44)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45) 『전경』 교법 1장 11절

인간의 주체적 행위는 모두 마음에서 부터 이루어져 나오며 그 마음은 항상 신과의 교섭을 통해서 작용하므로 결국 인간행위의 결과는 신적 작용의 소산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본질적 의의는 그 마음에 작용하는 신적 교류를 감지하고 그 가치판단을 통해 올바른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무한한 가치실현의 주체적 역할은 오직 인간에게 달려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전경』에 보면 ‘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일월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⁴⁶⁾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천지일월을 신적 가치의 근원으로 두고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내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는 다름아닌 인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천지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귀하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이 없는 신의 존재는 한낱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참된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神과 人間의 相補性

앞서 살펴본 신과 인간은 각각 별개의 존재로 독립해서 있지 않고 상호간의 교류속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나아가 신의 작용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인간의 행위가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그 이상적 관계는 신과 인간의 相補性을 통해 정립될 수 있게 된다. 대순사상의 신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 작용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전경』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 형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46) 『전경』 예서 21절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 47)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먼저 신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의 신은 어떠한 특정 작용을 가하는 기능신의 역할이 부각되며 또한 지역적 경계가 뚜렷한 서로 다른 신들이 위치를 옮겨가면서 일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신의 役事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이 인간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가 또한 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순신관의 주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 48)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 49)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 50)

윗 글의 첫번째 두번째 예문에서 볼 때 신의 실재 작용은 인간행위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다. ‘신망’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 흠향을 한다’는 것 등은 인간행위를 전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세번째 예문에서는 사람들 끼리의 싸움이 신들사이의 싸움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서 인간행위가 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신들간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그 결정이 다시 인간계의 역사를 결정짓는 것으로 그 종합적인 교류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과 인간은 상호교류하여 존재하므로써 서로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상보적인 틀 속에서 이 세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인간이 신과의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인간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신이며, 인간은 또한

47) 『전경』 예시 25절

48) 『전경』 교법 1장 25절

49) 『전경』 교법 1장 49절

50) 『전경』 교법 2장 23절

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존재로서 신이 依託해야만 하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하여 대순신관에서는 신과 인간이 그 상보적 관계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알고 그 상호접목된 모습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에서 보면

사람마다 그 닻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⁵¹⁾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 아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⁵²⁾

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이 인간을 호위하며 인간은 그 가치실현을 위한 공부를 하므로써 신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속에 役事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층 더 강조되어 지는 것은 인간이 그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인간이 신을 호위하는 것이 아닌 신이 인간을 호위하는 것이며, 신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강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대순 신관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신을 섬길줄도 알고 인간의 사명도 새롭게 자각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신관연구의 의의가 되기도 한다.

V. 神人調化의 理想

앞에서 살펴본 신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으로는 대순사상의 종지로 거론되는 신인조화의 이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인조화는 먼저 신과 인간의 상보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나아가 合一的 차원에서의 새로운

51) 『전경』 교법 2장 17절

52) 『전경』 교운 1장 63절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인조화의 개념적인 분석과 더불어 人尊의 사상, 윤리도덕세계의 구현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神人調化의 概念

신인조화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순종지 가운데 음양합덕의 의미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陰陽合德은 음과 양의 對待的 존재가 하나의 절대세계에서 만나 통일된 경지에서 무한한 혜택을 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강세하신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천지조판이며 후천을 이루는 원 바탕이다. 즉 그 어떤 것도 음양합덕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음양합덕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상대적 관계가 하나의 절대적 경지에서 합일되어 새로운 존재의 무한한 가치를 표현한 말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한편 조화(調化)라는 개념은 調和라고 할 때의 ‘고를 조’ 字와 造化라고 할 때의 ‘될 화’ 字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고르다’는 개념은 모두가 동등 동권하고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된다’는 것은 제각각이 자기 한도대로 다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신과 인간은 더 이상 별개의 존재가 될 수 없으며 하나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전경에는 이러한 새로운 탄생과 관련하여 도통의 경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53)

즉 도통은 닦은 바대로 누구나 통하게 되는 것이며 제각각이 한도대로 다 된다는 뜻으로써 신인조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하나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등급에 맞게끔 신의 조화가 그대로 응하여 신과 인간의 합일적 만남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도통은 어느 특정분야의 도통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신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자체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인조화의 개념은 신과 인간의 합일적 경지에서의 만남을 전제로 하여 신이면서 인간인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것을 도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2. 人尊의 實現

신인조화의 이념은 人尊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때 인존이란 인간의 가치가 진리로서의 신에 꼭 부합되어 인간이 지닌 한도대로 신이 응하여 이루어지는 신인합일의 경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순한 인간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에 神格을 부여한 것이니 인간의 위상이 더할 나위없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尊’자의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존귀하다는 뜻보다는 고대로부터 인간이 숭배해왔던 신적인 대상을 내포하는 글자인 것이다.⁵⁴⁾ 그리하여 신을 떠받들 듯이 인간을 떠받드는 시대가 바로 인존의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인존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다른 개념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천존(天尊)’과 ‘지존(地尊)’을 들 수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

54) 문자학상으로 보면 이 尊자의 본래 의미는 ‘술그릇’ 또는 ‘고대에 제사지낼 때 쓰던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다. 즉 제사의 대상은 신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데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존경하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등의 뜻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낙의 [한자정해] 비봉출판사, 참조)

라' (교법 2장 56절)

이 때 천존이란 말하자면 그 신이 하늘(天)이라고 하는 영역에 집을 정하고 머물면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 사물이 하늘을 향해 공경을 표시하고 제사를 지내왔던 역사를 의미한다. 지존은 또한 신이 땅(地)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사람으로부터의 제사와 공경을 받아왔던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인존시대라'고 한 것은 인간이 곧 신이 머무는 집이 된다는 것이며 그 모든 신의 권위와 능력도 인간에 의해서 행사되어 질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숭배의 대상도 천·지에서 인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천지가 담당해왔다고 생각했던 우주역사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때의 인간은 그야말로 모든 존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신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천지만물이 오직 인간을 위해 그 혜택을 베풀어 주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는 후천선경의 실상이며 음양합덕의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인간의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소망도 신인조화의 시대에는 모두 다 이룩될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걸어야 옳으나」 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⁵⁵⁾

윗 글을 보면 '서양의 문명이기는 모두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라고 하였으니 천국은 다름아닌 신의 세계로서 인류가 지향해왔던 이상세계의 원형이다. 이 때 신인이 조화되므로써 천국의 문명이 인간세계에 건설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입는 것은 다름아닌 인존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 '후천에는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고 하고,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

55) 「전경」 공사 1장 35절

를 갖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장 22절)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신인이 조화되어 이룩하는 새로운 세상은 오직 인간이 귀해지고 그 신적인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서 신에 의해 인간이 떠받들어지는 후천의 지상낙원을 말하는 것이다.

3. 倫理道德 秩序의 確立

신인조화로 인해 이룩되어지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상이 될 수 있다. 선천의 현실에서 윤리도덕이 타락한 원인은 모두 신을 무시하는데서부터 발생한 것이며 또한 선천의 윤리도덕일란 묵은 하늘이 빔어낸 것이어서 오늘날과 같은 원으로 점철된 참혹한 현실이 빔어지게 되었다. 제자가 스승을 해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며 신하가 임금을 해치는 것등은 상극세상에서 생겨난 윤리도덕관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인이 조화된 세상에서는 이러한 윤리도덕은 새롭게 정립된다. 즉 후천은 신이 인간을 집으로 삼아 합본(合本)이 되어서 이루는 세계이므로 신의 질서와 체계가 그대로 인간세상에 베풀어지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누구를 감히 속인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확고한 신의 질서에 어긋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룩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⁵⁶⁾(교법 3장 34절)

윗 글에서 말하는 강륜이라는 것은 모두 신의 감시와 수찰이 아주 엄격해서 감히 속일 수가 없고 어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른바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의 벼리가 되며(君爲臣綱), 아버

56) 전경, 교법 3장 34절

는 자식의 벼리가 되며(父爲子綱), 지아비는 지어미의 벼리가 된다는 것이다.(夫爲婦綱) 이때 '벼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사이의 신의의 벼리(信義之綱)이며, 아비와 자식사이의 양생의 벼리(養生之綱)이고, 지아비와 지어미사이의 화락의 벼리(和樂)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윤리적 실천으로서 아비와 자식간에 친함이 있어야 하며(父子有親), 임금과 신하간에 의리가 있어야 하고(君臣有義), 부부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하며(夫婦有別), 어른과 아이간에 차례가 있어야 하며(長幼有序), 친구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는 것인데 이러한 전통적 윤리관념에다가 스승과 제자사이의 이조(以詔)의 綱이 덧붙여 그 새로운 윤리체계가 갖추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의 시대란 바로 이것이 보편화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지속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때다. 따라서 어떠한 사곡(私曲)함도 행해질 수 없고 아주 엄격한 윤리도덕이 세워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즉 신명시대으로써 표현되는 후천은 신과 인간이 조화되어 인사의 모든 일이 신도(神道)의 권위로서 행해지는 세상이다. 따라서 아주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신이 개입하지 않는대가 없으며 또한 이를 감독하고 수찰하면서 오로지 바른 것만을 지켜나가게 된다.(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 공사 3장 40절)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지언정 신을 속일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과 불의가 없는 세상, 밝고 투명한 세계가 이룩된다.

한편 『전경』에는 이러한 신명의 작용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먹줄과도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57)

즉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명은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고 사곡된 것을 번갯불과도 같이 가려낸다는 것이다. 이럴 때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된 것을 행하는 자는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게 되니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다. 따라서 선천에서 볼 수 있었던 悖倫의 현상은 감히 저지를 수가 없으며 엄격한 신명의 통제하에 질서가 유지되게 되니 그 어느사회보다도 확고한 윤리 도덕질서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의 이상은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의 작용이 불지 안니함이 없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신명과 인간이 調和되고 造化하여 윤리도덕이 확고하게 정립된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神觀과 神人調化의 理想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통종교속에서 근대의 역사에 대두된 대순사상의 신관연구는 무엇보다도 한국 종교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 때 한국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적 사상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의 신관은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이 잘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다.

한국인의 신관의 기본구조는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通時的으로 유사한 형태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할 만한 견해로서 相對的 兩面性을 지니는 관계가 融和的 一元性으로 승화된다고 한 것이 있다.⁵⁸⁾ 相對的 兩面性이란 동양사상에서 일컫는 陰陽 이론과 같으며 融和的 一元性이란 음양에 대한 太極의 성격을 말한다. 음과 양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에 음과 양이 서로를 떠나지 않으며 절대세계에서 원융한 결합을 이루었을 때 이를 태극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57) 전경, 교법 3장 24절

58) 柳承國 『한국사상과 현대』 「한국인의 神觀」 pp.156~167 참조할 것

있다. 이러한 사유체계가 원형이 된 대표적 사상으로서 흔히 건국신화를 언급하게 된다. 건국신화에서 환웅과 응녀는 각각 천상과 지상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상대하고 있으며 그 결합으로서 탄생한 단군은 널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⁵⁹⁾ 그리하여 天과 地의 상대성이 인간단군을 통해 一元화된다는 것은 한국인의 신관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굳이 이러한 관점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순사상이 한국종교로서 갖는 신관의 구조는 그 相對性和 一元的 合一의 구조를 면할 수 없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상보적인 면을 강조해 나아가 나아가 ‘人尊’의 사상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신과 인간의 상대성이 합일적 경지에서 일원화될 것을 주장함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神人調化라고 할 수 있다. 신인조화는 신이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신이 되는 신과 인간의 합일적 경지를 묘사한 말이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최고신격으로서의 ‘上帝’도 대순사상에서는 人身으로 지상에 강림하게 되는 것이니 이 점은 인간 존중과 세계 일원화를 지향하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이루는 부분이다.

59) 『三國遺事』檀君王儉條

【참고문헌】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四書集註』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左氏傳』

『莊子』

『荀子』

『性理大全』

『史記』

『太極問』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이은봉 『종교세계에의 초대』 도서출판 벽호, 1993

최영진 『易傳에 있어서의 神의 문제』 공주사대 논문집, 1983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 출판부, 1994

김하태 『현대 서양종교 철학에 있어서 신관의 탈 서양화』

동방사상논고, 종로서적, 1983

김성기 『주역의 현대 종교사적 의의』 한국 주역학회 발표논문

이진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이해』 서광사, 1993

이경원 『書經에 나타난 上帝·天觀』 동양철학 연구 제 16집, 1996

이경원 『大巡上帝觀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순사상학술원, 1996

加地伸行 『유교란 무엇인가』 서울 지영사, 1996

이낙의 『漢字正解』 서울 비봉출판사, 1994

『유교대사전』 박영사

『세계철학대사전』 김형석, 고려출판사